2011학년도 경찰대학 제1차 시험 (언어영역)

※ 총 12쪽 5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① 철수가 급히 서두르다가 하마트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
② 할아버지께서 찾으신대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집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③ 그 사람이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것을 보니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④ 잉글랜드 축구팀은 불확실한 패스와 수비가 불안하여 독일 축구팀에게 완패하고 말았다.
⑤ '여름 하늘에 소낙비'는 흔히 있을 만한 일이어서 놀랄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2. <보기>의 ㉠~㉢을 모두 충족하는 접미사가 쓰인 것은?

<보기>

㉠ 접미사는 어근의 뒤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이다.
㉡ 접미사는 어근의 뒤에 붙어서 그 어근의 문법적 성격을 바꾸는 기능을 한다.
㉢ 접미사 중 일부는 단어보다 큰 구(句)에 붙기도 한다.

① 회의는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다.
② 철수가 완장을 차더니 어깨에 힘을 주며 으스대더군.
③ 아이들의 반짝거리는 눈망울이야말로 희망찬 미래의 표상이다.
④ 김 선생님은 훌륭한 학자답게 탁월한 식견과 높은 덕망을 지니셨다.
⑤ 풍부한 단백질 성분이 모발을 더욱 윤기 있고 자연스럽게 가꾸어 줍니다.

3.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한글 맞춤법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단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
①	낮잡다	업신여기다
②	부리나케	시꺼멓다
③	며칠	밑천
④	골병	꺾꽂이
⑤	아재비	홑몸

4.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융합은 특정한 문법적 환경에서 두 단어 이상이 줄어서 한 단어로 됨과 동시에 문법적, 의미론적 기능에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① 요즈음 경기가 시원찮아서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가 없다.
② 우리도 옛날에는 땅마지기나 가지고 남부럽잖게 살았소.
③ 그는 한 시간이나 늦게 와서는 같잖은 변명만 늘어놓는다.
④ 나는 몸이 아파서 만사가 다 귀찮다.
⑤ 그에 대한 소문이 심심찮게 들려왔다.

5. <보기>의 사전적 뜻풀이를 활용하여 작성한 문장 중 대응이 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으로[조]
1. ㉠어떤 일의 수단·방법 또는 연장을 나타냄.
2. 재료를 나타냄.
3. ㉡이유·원인을 나타냄.
4. ㉢장소·방향을 나타냄.
5. 신분·지위·자격을 나타냄.
6. 때·시간을 나타냄.
7. ㉣결과를 나타냄.
8. ㉤구성·비율 등을 나타냄.
9. 근거·표준·목표 등을 나타냄.

① ㉠ : 어떤 일이든 우격다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② ㉡ : 금년 농사는 가뭄으로 흉작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③ ㉢ : 도서관으로 질러오면 아주 가깝습니다.
④ ㉣ : 사장은 뉴욕 지사장으로 김부장을 파견했다.
⑤ ㉤ : 중국이나 미국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6. 다음 중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① 신에게 제물을 바쳐 우리 부락의 안녕을 빌었다.
② 그녀는 감정이 받쳐서 끝내는 울음을 터뜨렸다.
③ 마을 이장이 소에게 받쳐서 꼼짝을 못한다.
④ 체로 술을 밭쳐 놓았다.
⑤ 학생들은 자를 받치고 줄을 긋는다.

7. <보기>는 누리꾼들이 인터넷에 올린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들이다. 답변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 질문 : '집에 들르다'와 '집에 들리다' 중 어느 쪽이 맞는 표현인가요?
ㄴ 답변 : '들르다'는 '지나는 길에 잠깐 거치다'라는 뜻이며, '들리다'는 '소리가 들리다'의 뜻이므로 '들르다'가 맞습니다. 또한 '-었-'과 결합하면 '들리다'는 '들렸다'가 되고 '들르다'는 '들렀다'가 됩니다.

㉡ 질문 : '부서지다'와 '부숴지다' 중 어느 쪽이 맞는 표현인가요?
ㄴ 답변 : 둘 다 맞습니다. '부숴지다'는 '부수다'에 '-어지다'가 붙어서 생긴 말입니다. 참고로 '부서뜨리다'와 '부숴뜨리다'도 함께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 질문 : '보이다'와 '보여지다' 중 어느 쪽이 맞는 표현인가요?

ㄴ 답변 : '보이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보여지다'는 '보이다'에 '-어지다'가 붙은 말인데, '보이다'가 이미 '보다'의 피동사이므로 피동을 만드는 '-어지다'를 덧붙여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질문 : '가엾은'과 '가여운' 중 어느 쪽이 맞는 표현인가요?

ㄴ 답변 : 둘 다 맞습니다. 모두 표준어로서 '가엾다'는 '가엾은', '가엾고'로 활용하고 '가엽다'는 '가여운', '가엽고'로 활용합니다. 그러므로 '추위에 떨고 있는 가엾은 아이'와 '추위에 떨고 있는 가여운 아이'가 모두 맞는 말입니다.

㉤ 질문 : '게 섯거라'와 '게 섰거라' 중 어느 쪽이 맞는 표현인가요?

ㄴ 답변 : '게 섰거라'가 맞는 표현입니다. '거기 서 있거라'의 준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말의 받침을 살려야 합니다. 비슷한 예로 '여기 있다'는 '옛다'가 아니라 '옜다'로 적습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8.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학습 목표	국어의 피동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주요 개념	a. 피동사 : 동사에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동사 b. 파생적 피동문 : 피동사가 서술어인 문장 c. 통사적 피동문 : '-어지다', '-게 되다'에 의한 피동문

<보기 2>

학습 예문	㉠ 쥐가 고양이에게 물렸다. ㉡ 사기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다. ㉢ 곧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 전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다. ㉤ *동생이 철수에게 때리였다. (*는 비문 표시)

① ㉠ : 능동문을 파생적 피동문으로 바꾸면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는군.
② ㉡ : '-어지다' 구성은 '-게 되다' 구성과 외견상 구조가 다르군.
③ ㉢ : 통사적 피동문에서는 능동문의 주어가 그대로 주어로 쓰이는군.
④ ㉣ :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한 문장에 같이 실현될 수 있군.
⑤ ㉤ : 파생된 단어에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할 수 없군.

9.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잉 경쟁으로 시달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입시 경쟁과 부동산 투기 경쟁이 으뜸이다. 사람들은 왜 경쟁에 몰두하는 것인가? 그것은 ㉠경쟁의 승자에게 대한 과도한 보상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볼 때 대졸 신입 사원의 임금은 1.5배 정도가, 임원의 임금은 네 배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고 한다. ㉡그런데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경쟁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경쟁이 과도해지면 경제적인 낭비가 초래되고 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위협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잉 경쟁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웬간한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되어 있다. 이제라도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상의 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다.

① 첫째 문단의 끝에 '경쟁의 패자는 승자를 축복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첨가하여 문단의 완결성을 확보한다.
② ㉠은 어법과 문장의 호응을 고려하여 '경쟁의 승자에게 과도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로 고친다.
③ ㉡은 문맥에 어울리는 연결어가 아니므로 '그러니'로 바꾼다.
④ 문장의 주술 관계를 고려하여 ㉢을 '사회 구성원의 행복한 삶이 위협받는다.'로 고친다.
⑤ ㉣은 표준어가 아니므로 '웬만한'으로 바꾼다.

10. <보기>의 개요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목 : 정규직 파트타임제의 도입을 위한 제안

Ⅰ. 정규직 파트타임제의 의미 : 하나의 일자리를 두 명의 정규직 근로자가 나누어 갖는 제도

Ⅱ. 정규직 파트타임제의 장점
1. 기업
가. 집중력의 향상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나. 아이디어의 다양화로 인한 업무의 활력 증가
2. 개인
가. 건강 증진 및 자기 계발 시간의 확보
나. 육아 및 가사 문제의 해결
3. 정부
가. 고용 창출 효과
나. 소득세원의 증가

Ⅲ. 정규직 파트타임제의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1. 기업
가. 업무의 연속성 저해 가능성
나. 인력 관리 부담의 증가
2. 개인
가. 적은 보수로 인한 불만
나. 가사 노동 증가 우려

Ⅳ. 정규직 파트타임제의 필요성
1. 기업 : 직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
2. 개인
가. 보수에 대한 인식의 전환
나.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3. 정부 : 정규직 파트타임제의 도입을 장려하는 법률 제정

Ⅴ. 정규직 파트타임제 도입의 의의 : 육아 및 가사 문제로 인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

① Ⅱ의 구조에 대응하여 Ⅲ에 '정부 :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고용 불안 가능성'이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② Ⅲ-2의 '가사 노동 증가 우려'는 개요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③ Ⅳ는 하위 항목들의 내용을 아우르지 못하므로 '정규직 파트타임제 정착의 요건'으로 고친다.
④ Ⅳ-2의 '인식의 전환'을 '보수보다는 삶의 질에 가치를 두는 태도'로 구체화한다.
⑤ 개요의 내용을 반영하여 Ⅴ에 '고용 창출 기회의 증대'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집이나 철학책은 다른 장르의 글들보다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시에는 주관적이고 낯선 이미지들이, 철학책에는 이해하기 힘든 추상적 용어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인과 철학자가 친숙한 세계가 아니라 원초적으로 낯선 세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낯선 세계는 낯선 표현 방식을 통해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다. 우리의 친숙한 삶에 '느낌'과 '위험'으로 충만한 낯선 세계를 불러들인다는 점에서 시와 철학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시인이 느낀 것은 기존의 말로는 표현될 수 없는 낯선 상처 혹은 어떤 감각이다. 시는 기존의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것으로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말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아이러니를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시가 어려운 것이다. 새로운 말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말을 강제했던 시인의 낯선 감각도 공감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시인의 생경한 표현에 충분히 적응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다. 과거와는 다른 느낌으로 세계를 보고, 그에 따라 삶을 새롭게 영위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느낌을 기존의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시도할 때, 더듬거리는 말처럼 우리가 입속말로 웅얼거리는 것이 바로 시이다.

반면 철학은 개념들을 창조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엮음으로써 새로운 사유 문법을 만드는 학문이다. 가령 바닷가의 한 어부가 새로운 그물을 만들려고 준비한다면, 이것은 그 어부가 기존의 그물망으로 잡을 수 없는 새로운 물고기 종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철학을 새로운 그물을 만드는 작업에 비유할 수 있는 것도 이와 유사한 이유에서이다. 어떤 철학자가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고 그것을 엮는 이유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유 문법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의 그물코를 지나쳤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사실 철학책이 어려운 것은, 철학자가 만들어 놓은 그물만 보아서는 그것으로 무슨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물을 바닷물에 던져 보면 누구든지 그 그물로 잡을 수 있는 것과 잡을 수 없는 것을 차차 확인할 수 있다.

시인이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 온갖 물고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존재라면, 철학자는 그물로 끌어올린 물고기를 다시 확인하고 만져보는 사람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는 주관적인 것이고, 철학은 객관적 혹은 보편적인 것이라는 인상이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온몸으로 물고기를 경험했던 사람이 자신의 낯선 경험을 육지 사람들에게 들려주려 할 때, 그의 낯선 경험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반면 새로운 그물을 엮어 낯선 물고기를 뭍으로 끌어올려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이전보다는 좀 더 쉽게 그 낯섦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1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철학자는 낯선 세계를 직접 체험하여 이를 사람들에게 말로 전해준다.
② 철학자는 낯선 세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사유 문법을 만든다.
③ 사람들이 철학을 어려워하는 것은 철학자가 만든 새로운 사유 문법이 낯설기 때문이다.
④ 시집이나 철학책이 다른 글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원초적으로 낯선 세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⑤ 시를 이해하고 공감한 독자는 과거와는 다른 느낌으로 세계를 보게 되므로 그의 삶을 새롭게 영위할 수 있다.

12. 위 글의 서술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홍콩과 싱가포르는 부유한 항구도시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반도 끝에 있고, 19세기 영국에 점령되어 항구도시로 발전하였고, 주민이 대부분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이다.
② 서양과 한국은 언어 구조, 사고방식, 시간관이 다르다. 서양은 언어 구조가 이원적이고 사고방식이 인과율적이고 시간관이 일차원적이지만, 한국은 언어 구조가 다원적이고 사고방식이 현상학적이고 시간관이 삼차원적이다.
③ 문학과 어학을 일컬어 지하도와 육교에 비유하기도 한다. 문학은 지하도처럼 편안하게 내려가며 출발할 수 있는 학문이지만 가면 갈수록 캄캄한 어둠 속과 같고, 어학은 처음에는 오르막이어서 힘들지만 일단 올라서면 평지거나 내리막만 있어서 비교적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④ 정원으로 내려갔다. 양배추 위에 이슬이 은빛 레이스처럼 덮여 있고, 하얗고 가느다란 실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새도 울지 않고, 짚으로 덮인 과일나무도, 벽과 지붕 밑에 병든 뱀처럼 누워 있는 포도나무도 모두 잠든 것처럼 보였다.
⑤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 가운데 선택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에 의해 기록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역사가 특정한 관점에 의해 왜곡되는 사례가 많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13. ㉠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한 학생들의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낡은 아코오뎡은 대화를 관뒀습니다.

— 여보세요?

폰폰따리아
마주르카
디이젤-엔진에 피는 들국화

— 왜 그러십니까?

모래밭에서
受話器
여인의 허벅지
낙지 까아만 그림자

비둘기와 소녀들의 랑데—부우
그 위에
손을 흔드는 파아란 깃폭들

나비는
起重機의
허리에 붙어서
푸른 바다의 층계를 헤아린다.

- 조향, 「바다의 층계」 -

① 철수 : "모래 밭에서 受話器" 운운하는 말은 너무 낯설어.
② 영희 : 그런 표현은 시인이 새로운 말을 강제한 결과 생긴 거야.
③ 경빈 : 다른 식으로 말하면 시인이 기존의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이지.
④ 민지 : 나는 그런 표현이 공감하기가 어려운걸.
⑤ 용진 : 그건 우리가 아이러니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

14. ㉡과 단어의 구조가 같은 것은?

① 그는 나의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
② 그가 크게 웃음으로써 교실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③ 엄마에게 야단맞은 아이는 설움에 겨워 훌쩍거렸다.
④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이며 냉엄한 삶 그 자체가 아닌가!
⑤ 어딘지 모르게 그들의 행동에서 들었던 미심쩍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산에 정자를 짓고 화조월석(花鳥月夕)에 두 사람이 정자에 왕래하며 칠현금(七絃琴)을 희롱하고 노래로 화답하여 서로 즐기며 배회고면(徘徊顧眄)하여 청흥(淸興)이 ⓐ도도하므로 그 부모가 보고,

"너희 두 사람은 천생연분이 적실하도다."

하고 선군을 불러 말하기를,

"이번에 알성과(謁聖科) 뵌다 하니 너도 올라가 과거를 보아 요행히 참방(參榜)하면 네 부모가 영화롭고 조상을 빛내는 게 되지 않으랴?"

하며 길을 재촉하니 선군이 말하기를,

[A] "우리 전답이 수천 석이요 노비 천여 명이라. 십 리나 되는 넓은 연못과 아름다운 음악과 여색(女色)을 임의대로 할 처지거늘, 무슨 부족함이 있어 또 급제를 바랄 것인가? 만약 집을 떠나면 낭자로 더불어 여러 달 이별이 될 것이니 사정이 절박하도다."

하고 동별당에 이르러 낭자더러 부친과 문답하던 말을 전하니 낭자가 자세를 바로 하고 말하기를,

[B] "낭군의 말이 그르도다. 세상에 나서 입신양명하여 부모께 영화 뵘이 장부의 떳떳한 바이거늘 이제 낭군이 규중처자를 연연하여 남아의 당당한 일을 폐하고자 하면 부모께 불효 될뿐더러 타인의 꾸지람이 ⓑ종시(終是) 첩에게 돌아올지니 바라건대 낭군은 재삼 생각하여 과행(科行)을 바삐 차려 남의 웃음을 취하지 마소서."

하고 노자를 준비하여 주며 말하기를,

"낭군이 금번 과거를 못 하고 돌아오면 첩이 살지 못하리니 낭군은 조금도 ⓒ괘념 말고 길을 떠나소서."

하거늘, 선군이 그 말을 들음에 말마다 합당한지라 (㉠) 부모께 하직하였다.

중략된 부분의 이야기

과거를 보러 나선 선군이 낭자가 보고 싶은 마음에 해가 지면 집에 다시 돌아와 낭자와 함께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길을 떠나기를 반복한다.

백공이 생각하기를,

"괴이하고 괴이하도다. 내 집의 담이 높고 상하 이목이 ⓓ번다하여 외인(外人)이 마음대로 출입을 못 하거늘, 어찌 수일을 두고 낭자의 방에서 남자의 소리가 나니 이 반드시 흉악한 놈이 낭자와 통간함이로다."

하고 처소로 돌아가 탄식하기를,

"낭자의 정절로 이런 일을 하니 이로 보건대 옥석(玉石)을 분간하기 어렵도다."

하며 의혹이 짙어져서 어찌 처리할지 고민이더라. 부인을 불러 이 사연을 일러 말하기를,

"그 진가(眞假)를 알지 못하였지만, 만일 불미스런 일이 있으면 장차 어찌 하리오?"

부인이 말하기를,

"상공은 잘못 들은 것일 것입니다. 현부(賢婦)의 행실은 백옥 같아서 그렇게 할 리 없으니 다시 부정한 말을 마십시오."

하니 백공이 말하기를,

"나도 저의 일을 알기로 의아해 하고 있으니 저를 불러 물어보아 그 진상을 알아봅시다."

하고 낭자를 불러 묻기를,

"요사이 집안이 적적해서 도적을 살피려고 집안을 두루 돌아 네 처소에 가니 방에서 남자의 음성이 은은히 들리기에 내 매우 괴이해서 돌아와 생각하니 그럴 까닭이 있으랴 했는데, 이튿날 또 가서 들으니 역시 남자의 소리가 낭자(狼藉)하니 이 아니 괴이하랴? 사생 간에 이실직고하라."

낭자가 (㉡),

"밤이 오면 춘행과 동춘을 데리고 매월과 함께 이야기하였거니와 어찌 외간남자가 있어 말을 하였으리오? 이는 천만 뜻밖의 말씀입니다."

말하거늘, 백공이 듣고 ⓔ적이 마음이 놓이나 일이 괴이하여 매월을 즉시 불러 묻기를,

"네가 요사이 낭자 방에 가 잤느냐?"

매월이 대답하기를,

"요사이 소인의 몸이 곤하여 낭자 방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백공이 매월의 대답을 듣고 더욱 수상히 여겨 매월을 꾸짖기를,

"요사이 괴이한 일이 있어 놀라고 괴상히 여겨 낭자에게 물으니 너와 함께 자며 수작(酬酌)하였다 하고 너는 가지 아니하였다 하여 두 말이 같지 않으니 낭자가 외인과 사통한 것이 분명하도다. 너는 모름지기 착실히 살펴 그 왕래하는 놈을 잡아 고하라."

하니 매월이 명을 받고 아무리 주야 살핀들 그림자도 없는 도적을 어찌 잡으리오. 이는 공연히 매월로 하여금 간계를 꾸미게 하는 기회가 된지라. 매월이 이에 생각하기를,

"소상공(小相公)이 낭자와 작배(作配)한 후로 지금껏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니 어찌 애달프지 아니하리오. 이때를 타 낭자를 음해하여 나의 쌓인 한을 풀리라."

하였다.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15. 위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낭자'에 대한 '부인'의 믿음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② '낭자'는 왜 '선군'의 행위에 대해 사실대로 고하지 않았을까?
③ '선군'은 '낭자'와 결혼하기 전에 '매월'과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④ '백공'의 물음에 대한 '매월'의 대답은 왜 '낭자'의 말과 어긋날까?
⑤ '낭자'를 곤란한 처지로 내몬 '매월'의 간계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16. '백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집안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③ 우연한 기회에 며느리에 대한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
④ 며느리에 대한 의혹 때문에 하녀에게 화를 내고 있다.
⑤ 증거를 확보하여 며느리에 대한 의혹을 풀려고 하고 있다.

17.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와 B는 모두 상대의 처지를 걱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말이다.
② A와 B에는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 하는 인물들의 의도가 나타난다.
③ A에는 공동체적인 가치가, B에는 개인적인 가치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④ A에는 명예를 추구하는 태도가, B에는 실리를 중시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⑤ A는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한 판단이, B는 유교적 이념을 근거로 한 판단이 중심이다.

18. 문맥상 ㉠과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묶지 않은 것은?

㉠	㉡
① 마지못하여	낯빛을 바꾸며
② 속상해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③ 하릴없이	무릎을 꿇으며
④ 속절없이	읍소하며
⑤ 기어이	선선히

19. ⓐ~ⓔ의 사전적 의미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 : 막힘이 없이 힘차므로
② ⓑ : 끊임없이
③ ⓒ : 마음에 두고 신경을 씀
④ ⓓ : 번거롭게 많아
⑤ ⓔ : 꽤 어지간한 정도로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매스미디어 연구의 선구자인 마셜 맥루언은 "매체가 메시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는 매체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매체라는 형식 그 자체가 곧 메시지라는 것이다. 보드리야르는 맥루언의 명제를 더욱 심화하고 확대한다. 마치 상품 생산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교환가치의 작용 그 자체가 사람들의 관계를 돈과 계산이 지배하는 냉혹한 관계로 만들어버리듯이, 그는 매체를 자신의 형식에 따라 작용하는 작동체로 본다. 따라서 매체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나) 대중매체는 응답이 성립될 수 없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행한다. 즉 메시지는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때로는 어이없어 하고 때로는 욕을 하지만, 그런 생각이나 말은 종이나 브라운관에 부딪혀 흩어지고 침묵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오직 가능한 것은 매체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 또한 그 메시지는 매체가 내장하는 일정한 코드에 따라 언제나 모델화 된다. 그 ⓐ모델에 따라 사람들은 상품의 의미를 읽고 그 상품을 소비한다. 이때 상품 고유의 특이성은 사라지고, 반복되는 동일한 모델만 남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사건을 접하면, 그것을 매체의 ⓑ코드에 따라 상투화된 모델로 변형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말만 들어도 그 내용을 안다고 여긴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실재계(實在界)는 정해진 코드에 지배된다.

(라) 한편 이전에는 그다지 대수롭지 않았던,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던 일들이 매체를 통해 때로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 때로는 사회적 파장을 갖는 '이벤트'가 된다. 유명한 야구선수의 귀국은 야구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나도 어느새 알게 되는 큰 이벤트가 된다. 이처럼 매체는 모든 일들을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는 그가 광고에 나와서 컴퓨터를 팔고 팬들을 위한 사인회를 여는 등의 또 다른 구경거리로 이어진다. 하나의 구경거리가 또 다른 ⓓ구경거리를 낳고, 하나의 기호가 또 다른 기호를 복제한다.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현대의 ㉡시뮬레이션은 이처럼 다른 구경거리로부터 증식되는 복제 과정을 통해 원본보다도 훌륭한 복제를 만들어낸다.

(마) 매체의 코드에 따라 사건화되고, 정형화된 모델에 따라 증식되는 이러한 복제 속에서, 이젠 무엇이 실재고 무엇이 복제인지가 모호해진다. 더불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도 모호해진다. 그 복제물과 구경거리 밑에 정말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가? 스포츠 영웅을 다루는 저 요란한 구경거리들에서 원본이 대체 어떠한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시뮬레이션은 구경거리에 상응하는 원본이 없음을 감춘다. 그렇지만 그것은 원본보다 훨씬 더 생생한 영웅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구경거리가 이제는 현실의 사람들을 움직인다. 이렇게 원본보다 더 생생하고 실재보다 더 실재적인 구경거리를 ⓔ'하이퍼 리얼리티(hyper reality)'라고 부른다. 여기서 '하이퍼(hyper)'는 실재의 저편으로 벗어나 있고, 실재가 아니지만 실재보다 더 실재적이고, 없는 것을 대신한다는 뜻이다.

20.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권위자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논의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② (나)는 매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언급하면서 논의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③ (다)는 대조적인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④ (라)는 있을 법한 사례를 상정하여 논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⑤ (마)는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논의 내용을 개념화하고 있다.

21. 위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① 매체의 개념
② 매체의 공공성
③ 매체의 작동 방식
④ 시뮬레이션의 속성
⑤ 교환가치 작용의 폐해

22. ㉠과 용법이 다른 것은?

① 그가 어디에 사는지 물어보자.
② 난 괜찮으니 언제 출발해도 좋아.
③ 배가 고프니 무엇이라도 좀 먹어야겠다.
④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
⑤ 내가 누구랑 밥을 먹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23. ⓐ~ⓔ 중 ㉡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주 개발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주장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칼 세이건이 우려하는 것처럼 인류가 혜성이나 소행성의 지구 충돌과 같은 재앙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구 이외의 다른 행성에 식민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행성의 지구 충돌로 ⓐ절멸한 공룡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여기에는 자원 고갈이나 환경오염과 같은 전 지구적 재앙에 대비하자는 주장도 포함된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관심을 지구에 ⓑ한정한다는 것은 인류의 숭고한 정신을 가두는 것이라는 호킹의 주장을 들 수 있다. 지동설, 진화론,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빅뱅 이론과 같은 과학적 성과들은 인류의 문명뿐만 아니라 정신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주는 어떻게 탄생하였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지구 밖에도 생명체는 있는가? 이상과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우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노력과 그에 따른 새로운 결과는 인류의 지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주 개발의 노력에 따르는 ⓒ부수적인 기술의 파급 효과를 근거로 한 주장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계에 이전된 새로운 기술이 100여 가지나 된다고 한다. 인공심장, 신분확인 시스템, 비행 추적 시스템 등이 그 대표적인 기술들이다. 이밖에 무중력 상태에서만 제조가 가능한 신소재나 신약의 개발이 우주 개발의 유용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주 개발은 인류에게 정신적·물질적 차원에서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

그러나 우주 개발에서 얻는 이익이 과연 인류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답할 수가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탐사의 주된 목적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라기보다 영토와 자원, 힘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주 개발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우주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노력을 지구의 가난과 자원 고갈,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 주장을 따른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인류가 우주 개발에 나서지 않고 지구 안에서 인류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더라도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한한 것은 아니며, 인구의 자연 증가를 막을 수 없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지구에 자금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우주 개발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세울 수 있다. 오히려 인류가 미래에 ⓓ닥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 밖에서 찾게 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우주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최근에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인류가 의식을 갖게 되면서부터 우주를 꿈꾸어 왔다는 증거는 세계 여러 민족의 창세신화에서 발견된다. 수천 년 동안 우주에 대한 인류의 꿈은 ⓔ식어갈 줄 몰랐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날의 우주 개발이라는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 개발은 인류의 물질문명뿐만 아니라 정신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필요할 수도 있다.

이제 인류는 우주의 시초를 밝히게 되었고, 우주의 끄트머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우주 공간에 인류의 거주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우주 개발을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는 이제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는 우주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이다. "달과 다른 천체들은 모든 나라가 함께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유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어느 국가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린든 B. 존슨의 경구는 우주 개발의 방향을 일러주는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24.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주 개발의 한계
② 지구의 당면 과제
③ 우주 개발의 정당성
④ 친환경적인 지구 개발
⑤ 우주 개발 기술의 발달

2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우주의 신비를 점차 밝혀내고 있다.
② 인류는 오래 전부터 우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③ 역사적으로 볼 때 우주 탐사는 주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행해졌다.
④ 칼 세이건은 인류가 혜성이나 소행성의 지구 충돌로 재앙을 겪게 된다고 염려하였다.
⑤ 호킹은 우주에 대한 관심이 인류의 문명뿐만 아니라 정신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였다.

26. 위 글의 글쓴이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반론을 수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다.
② 상반된 두 주장을 비판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③ 다른 의견을 비판하여 자신의 주장의 설득력을 제고한다.
④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빈번하게 활용하여 주장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⑤ 자신의 주장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27. ⓐ~ⓔ를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절멸한 → 자취를 감춘
② ⓑ 한정한다는 → 국한한다는
③ ⓒ 부수적인 → 부차적인
④ ⓓ 닥칠 → 직면할
⑤ ⓔ 식어갈 → 사그라질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점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꿩도 섧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 -

(나)

[A]
어두운 방 안에
바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B]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C]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 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

[D]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E]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 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聖誕祭)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 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 것이라곤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 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 김종길, 「성탄제」 -

(다)

신부는 초록 저고리 다홍 치마로 겨우 ⓐ귀밑머리만 풀리운 채 신랑하고 첫날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신랑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 돌쩌귀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신랑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신부가 음탕해서 그 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당기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 버렸습니다. 문 돌쩌귀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곤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인가 50년이 지나간 뒤에 뜻밖에 딴 볼일이 생겨 이 신부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신부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신부는 귀밑머리만 풀린 첫날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 때서야 ⓔ매운 재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 재와 다홍 재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 서정주, 「신부」 -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에서는 인물에 대한 회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가)와 (다)는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나)와 (다)는 색채 대비를 통해 내면적인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④ (가)~(다)는 모두 대상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한(恨)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다)는 모두 시적 화자의 체험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9. (가)의 산꿩과 시적 기능이 가장 유사한 것은?

① 농암(聾巖)에 올아 보니 노안(老眼)이 유명(猶明)이로다
인사(人事)이 변혼들 산천이야 가실가
암전(巖前)에 모수모구(某水某丘)이 어제 본 듯ᄒᆞ예라
② 올히 ᄯᅡᆯ은 다리 학긔 다리 되도록애
거믄 가마괴 해오라비 되도록애
향복무강(享福無疆)ᄒᆞ샤 억만세(億萬歲)를 누리쇼셔
③ 전원에 나믄 흥을 전나귀에 모두 싯고
계산(溪山) 니근 길로 흥치며 도라와서
아히 금서(琴書)를 다스려라 나믄 히를 보내리라
④ 방안에 혓는 촉(燭)불 눌과 이별ᄒᆞ엿관ᄃᆡ
것츠로 눈물 디고 속 타는 줄 모르는고
더 촉불 날과 갓트여 속 타는 줄 모르도다
⑤ 지죄괴는 져 가마괴 암수를 어이 알며
지나는 져 구름에 비 올똥말똥 어이 알리
암아도 세사 인정(世事人情)도 다 이런가 ᄒᆞ노라

30. ⓐ~ⓔ 중 (가)의 '눈물 방울'과 함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31. [A]~[E] 중, 시상 전개상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 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기형도, 「엄마 걱정」-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2. (다)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랑이 잘못해서 빚어진 일인데 피해는 신부가 뒤집어썼네.
② 신랑은 여인의 정숙함을 중시하는 봉건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군.
③ 세월이 지나도 신랑은 일말의 동정심도 갖지 않는 냉정한 사람이군.
④ 상대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있어야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⑤ 확인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춤은 발로 노닐고 악(樂)은 손으로 하니, 춤판이란 손발이 척척 맞아야 좋은 판이 된다. 춤을 보면 음악이 들리고 음악을 들으면 춤이 보이는 판, 그것이 격(格)이다. 그래서 서너 평 남짓한 무대에서 몸과 소리가 조화된 소요유(逍遙遊)의 무릉도원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런즉, 춤을 부른 소리는 장히 중하다. 그 중심은 장구인데, 천상의 궁합이 필요하다.

㉠장구는 허리가 잘록해 세요고(細腰鼓)라고도 한다. 그래서 세워놓고 보면 꼭 모래시계 같다. 시간을 담고 있는 본색을 드러내는 자태이다. 장구 속에 있는 무한을 흠모하는 자를 고수(鼓手)라 한다. 그들이 호리병 속의 시간을 꺼내 대나무 채로 재단하는 것을 박(拍)이라 한다. 그리고 잘게 부순 박 위를 걷는 것, 그것이 춤이다. 그러니 절묘한 춤이란 소리를 내는 자와 발을 밟는 자 간의 호흡이 일치해야 한다. 아예 한 사람의 심폐인 양 통합되어야 한다. 그래야 춤답고 소리답다. 원로 명무(名舞)들은 이구동성으로 고수(高手) 김청만의 장구를 원했다.

장단이 발이면 선율은 손이다. 춤을 추려면 지속음이 나는 악기를 써야 한다. 그래야 손이 들려 있을 수 있다. 예로부터 장구와 북의 장단 위에 피리, 대금, 해금 따위의 지속음 나는 대나무 악기들이 춤음악을 담당했다. 이를 두고 삼현육각(목피리, 겹피리, 대금, 해금, 장구, 좌고)이라 한다. 이 고전적인 편성이 속화(俗化)된 것이 '시나위 합주'다. 정해진 원칙은 없으나 대체로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악기가 들어간다. 음역이 넓은 아쟁이 가세하고, 지속음 일색이라 끊음질도 필요해 거문고나 가야금을 넣는다. 여기에 북 대신 징이 들어가 시나위 합주를 하는 것이다.

대나무와 오동나무는 모두 속을 비운 나무다. 그래서 이를 다루는 이들도 자신의 선율을 비워야 완벽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이렇듯 서로가 서로를 읽으며 심금을 울리는 것이 시나위의 묘미이다. 결국 춤판은 춤이나 음악이나 너나없이 능통해야만 가능한 판이다.

김청만의 섭외로 아쟁의 박종선, 대금의 원장현, 거문고의 이세환, 피리의 한세현, 해금의 김성아, 쟁쟁한 명인들이 모였다. ㉡'털 하나 안 들어간다'는 말 나오게 잘 짜인 우리 시대 최고의 시나위 드림팀이 결성된 것이다. 시나위 선율이 남도 무속의 선율에 기반을 두는지라 대부분 호남의 명인이었다. '소리는 호남이요, 춤은 영남'이란 말처럼, 호남 최고의 무악(舞樂)이 모여 영남 무림(舞林)의 최고수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무대가 밝아지며 시나위가 서서히 펼쳐질 때,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나온 한량이 꾸벅 인사하고 지팡이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차마 잊지 못할 춤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저 음악에 몸을 맡기는데, 어느덧 무이구곡(武夷九曲)에 흘러든 듯했다. 슬픔과 기쁨이 한 올에 휘감긴 시나위는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 경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 가고 있었다. 퇴계가 태극도설(太極圖說)을 펼쳐들고 희고했듯이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솟아나고 눈이 열리는' 시간이었다.

3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춤을 부른 소리의 중심에는 장구가 있다.
② 춤을 추려면 지속음이 나는 악기를 써야 한다.
③ 시나위 합주는 고전적인 삼현육각으로 편성한다.
④ 시나위 선율은 무속의 선율에 기반을 둔 것이다.
⑤ 시나위 합주에서 춤과 음악은 경쟁적 관계가 아니다.

3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개념의 의미를 단계적으로 밝히고 있다.
② 인과 관계에 주목하여 사물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
③ 동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④ 소리의 구성 요소를 몇 부분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⑤ 사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35. ㉡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합주자들이 춤이 도드라져 보이도록 연주한다.
② 합주자들이 여러 번 연주를 같이 하여 매우 친숙하다.
③ 합주자들이 출신 지역의 차이를 개성적으로 드러낸다.
④ 합주자들의 기량이 탁월하고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⑤ 합주자들이 장구를 축으로 하여 각자의 기량을 유감없이 과시한다.

36. ㉤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① 화이부동(和而不同)
② 흥진비래(興盡悲來)
③ 일망무제(一望無際)
④ 무아지경(無我之境)
⑤ 염화미소(拈華微笑)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기태심(旱旣太甚)ᄒᆞ야 시절이 다 느즌 제,
서주(西疇) 놉흔 논애 잠싼 긴 널비예
도상무원수(道上無源水)을 반만싼 디혀 두고,
쇼 ᄒᆞᆫ 젹 듀마 ᄒᆞ고 엄섬이 ᄒᆞᄂᆞᆫ 말삼,
㉠친절(親切)호라 너긴 집의 달 업슨 황혼의 허위허위 다라셔,
구디 다든 문 밧긔 어득히 혼자 서셔
큰 기춤 아함이를 양구(良久)토록 ᄒᆞ온 후에,
어화 긔 뉘신고 염치업산 닉옵노라.
초경도 거읜딕, 긔 엇지 와 겨신고
㉡연년(年年)에 이러ᄒᆞ기 구차ᄒᆞᆫ 줄 알건만ᄂᆞᆫ,
쇼 업슨 궁가(窮家)에 혜염 만하 왓삽노라.
공ᄒᆞ니나 갑시나 주엄즉도 ᄒᆞ다마ᄂᆞᆫ,
다만 어제밤의 거넌집 져 사람이
목 불근 수기치(雉)을 옥지읍(玉脂泣)게 ᄭᅮ어닉고,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을 취토록 권ᄒᆞ거든,
㉢이러ᄒᆞᆫ 은혜을 어이 아니 갑흘넌고.
내일로 주마 ᄒᆞ고 큰 언약 ᄒᆞ야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ᄒᆞ니 사셜이 어려왜라.
실위(實爲) 그러ᄒᆞ면 혈마 어이홀고.
헌 면덕 수기 스고 측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오니,
풍채 저근 형용애 긔 즈츨 ᄲᅮᆫ이로다.
와실(蝸室)에 드럭간돌 잠이 와사 누어시랴.
북창을 비겨 안자 시비롤 기다리니,
무정ᄒᆞᆫ 대숭(戴勝)은 이닉 한을 도우ᄂᆞᆫ다.
종조추창(終朝惆悵)ᄒᆞ며 먼 들흘 바라보니,
㉣즐기ᄂᆞᆫ 농가(農歌)도 흥업서 들리ᄂᆞᆫ다.
세정(世情) 모론 한숨은 그칠 줄을 모ᄅᆞᄂᆞᆫ다.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나)

혼자 앉아 찾아오는 손님도 없이 — 獨坐無來客
빈 뜰엔 비 기운만 어둑하구나. — 空庭雨氣昏
물고기가 흔드는지 연잎이 움직이고 — 魚搖荷葉動
까치가 밟았는지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 鵲踏樹梢翻
거문고가 젖었어도 줄에서는 소리가 나고 — 琴潤絃猶響
화로는 싸늘한데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 爐寒火尙存
㉤진흙길이 출입을 가로막으니 — 泥途妨出入
하루 종일 문을 닫아걸고 있단다. — 終日可關門

- 서거정, 「독좌(獨坐)」 -

(다)

백설이 ᄌᆞ자진 골에 구루미 머흐레라
반가온 ㉥매화ᄂᆞᆫ 어닉 곳에 픠엿ᄂᆞᆫ고
석양에 홀로 셔 이셔 갈 곳 몰라 ᄒᆞ노라

- 이색 -

37.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타나 있다.
②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③ 화자의 고독한 처지가 작품의 바탕에 깔려 있다.
④ 대상의 특징을 포착하여 예찬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⑤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이 나타나 있다.

38.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나)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② (가)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나)는 설의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③ (가)는 대상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나)는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가)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나)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가)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만, (나)는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9. (가)를 바탕으로 하여 연극을 상연하려고 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농촌 마을을 무대의 배경으로 설정해야겠군.
② 허름한 차림을 한 배우를 주인공으로 해야겠군.
③ 시간적 배경은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로 설정해야겠군.
④ 소품으로는 주인공이 손에 들어야 할 술병을 준비해야겠군.
⑤ 음향으로는 개 짖는 소리, 새 소리, 노래 소리를 준비해야겠군.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화자의 기대가 행동에 나타나 있다.
② ㉡ : 화자의 행위가 반복되어 왔음을 드러낸다.
③ ㉢ : 소 주인이 화자의 부탁을 거절한 이유가 나타나 있다.
④ ㉣ : 화자의 낙담한 심정이 드러나 있다.
⑤ ㉤ : 화자가 세속과 타협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41. <보기>에서 ⓐ와 시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 이육사, 「광야」 -

① 닭 우는 소리 ② 산맥
③ 광음(光陰) ④ 눈
⑤ 초인(超人)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보 파놉티콘(Panopticon)'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 통제와 규율에 정보 수집이 합쳐진 것이다. 정보 파놉티콘에서의 '정보'는 벤담의 파놉티콘에서의 시선(視線)을 대신하여 규율과 통제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이들에게 규율을 강제한 메커니즘은 시선에서 정보로 진화했다. 19세기에는 사진 기술을 이용하여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했는데, 이 기술이 20세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카메라와 결합한 통계학으로 이어진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미국은 발목에 채우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죄수를 자신의 집 안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 가두어 감시하면서 교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의 집이 교도소로 변하고, 국가가 관장하던 감시가 기업이 판매하는 전자기기로 대체됨으로써 전자기술이 파놉티콘에서의 간수의 시선을 대신한다.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통해 얻은 정보가 간수의 시선을 대체했지만, ㉠벤담의 파놉티콘에 갇힌 죄수가 자신이 감시를 당하는지 아닌지를 모르듯이, ㉡정보 파놉티콘에 노출된 사람들 또한 자신의 행동이 국가나 직장의 상관에게 열람될지의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그들이 감시당하는지 모를 때에도 우리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라고 한 관료가 논평했는데, 이는 파놉티콘과 전자 감시의 유사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전자 감시는 파놉티콘의 감시 능력을 전 사회로 확장했다. 무엇보다 시선에는 한계가 있지만 컴퓨터를 통한 정보 수집은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이기 때문이다. "컴퓨터화 된 정보 시스템이 작은 지역 단위에서만 효과적으로 작동했을 파놉티콘을 근대 국가에 의한 일상적인 대규모 검열로 바꾸었는가?"라고 한 정보사회학자 롭 클링은, 시선의 국소성과 정보의 보편성 사이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철학자 들뢰즈는 이러한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일반화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푸코의 규율 사회를 벗어난 새로운 통제 사회라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규율 사회는 중기 기관과 공장이 지배하고 요란한 구호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이지만, 통제 사회는 컴퓨터와 기업이 지배하고 숫자와 코드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이다. 벤담의 파놉티콘이 규율 사회에 적합한 감시의 메커니즘이라면 정보 파놉티콘은 통제 사회에 적합한 감시의 메커니즘인 것이다.

감시가 범사회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되면서 간수가 중앙 탑에 숨어서 주변의 감방을 감시했던 파놉티콘과 달리, 정보 파놉티콘에는 '중앙'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다. 순찰차에 장착된 컴퓨터를 통해 차량 번호 같은 간단한 데이터를 현장에서 바로 입력하여 즉석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경찰은 경찰서라는 중앙에 들어가지 않고도 감시를 수행할 수 있다. 즉 중앙 감시탑의 역할이 모든 순찰차로 분산된 것이다. 우리를 감시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도 중앙 한 곳에서 관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직장, 관공서 등의 독립적으로 분산되어 존재하는 소규모 감시 네트워크에 의해 관장된다. 전자 감시는 벤담의 원형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뛰어넘어 도시, 국가, 세계로 그 관장 영역을 넓혔고, 동시에 이를 관장하는 권력자가 위치하던 중앙의 감시탑과 같은 공간도 다양한 네트워크로 분산시켰다. 물론 중앙의 분산화가 감시의 느슨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앙의 감시 능력을 주변에서 나누어 가지면서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감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42. 위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 파놉티콘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욱 정교해질 것이다.
② 정보 파놉티콘이 종국에는 감시 체계 자체를 소멸시킬 것이다.
③ 정보 파놉티콘은 교정 시설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다.
④ 정보 파놉티콘은 감시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게 해 줄 것이다.
⑤ 정보 파놉티콘이 발달할수록 개인의 사생활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43. ㉠과 ㉡을 비교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벤담의 파놉티콘	㉡ 정보 파놉티콘
①	직접적 통제와 규율	직접적 통제와 규율+정보 수집
②	중앙 집중화	중앙의 분산화
③	감시의 철저함	감시의 느슨함
④	특정 공간에서의 제한된 검열	일상적인 대규모 검열
⑤	규율 사회	통제 사회

44. <보기>에서 위 글의 서술상 특징을 모두 묶은 것은?

<보기>

ㄱ. 권위자의 견해를 소개하여 논지를 전개한다.
ㄴ. 구체적인 예를 동원하여 개념을 쉽게 설명한다.
ㄷ.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한 후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ㄹ. 다른 대상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부각시킨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45. ㉢의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형사가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범죄 혐의자의 동태를 녹화한다.
② 버스 회사가 운전자 보호를 위해 버스에 영상 녹화 장치를 장착한다.
③ 부모들이 안전을 위해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준다.

④ 대학에서 학생 관리를 위해 전자 학생증을 사용하여 출석 여부를 확인한다.
⑤ 마을 주민들이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어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다.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슨 하늘이 알 만큼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큰 지주로서 한 마을의 주인 격으로 제법 풍족하게 살아오던 철호의 어머니의 눈에는 아무리 그네가 세상을 모른다고는 해도, 산등성이를 악착스레 깎아내고 거기에다 게딱지 같은 판잣집들을 다닥다닥 붙여놓은 이 ㉠해방촌이 이름 그대로 해방촌(解放村)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두 내 나라를 찾았다게 기뻐서 울었다. 엉엉 울었다. 시집 올 때 입었던 홍치마를 꺼내 입구 춤을 추었다. 그런데 이꼴 돟다. 난 싫다. 아무래도 난 모르겠다. 뭐가 잘못됐건 잘못된 너머 세상이디 그래."

철호의 어머니 생각에는 아무리 해도 모를 일이었던 것이었다. 나라를 찾았다면서 집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었다.

철호의 어머니는 남한으로 넘어온 후로 단 하루도 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렇게 지내오던 그날, 육이오 사변으로 바로 발 밑에 빤히 내려다보이는 용산 일대가 폭격으로 지옥처럼 무너져나가던 날 끝내 철호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큰애야. 이젠 정말 가자. 데것 봐라. 담이 홈싹 무너졌는데, 삼팔선의 담이 데렇게 무너지는데, 야."

그때부터 철호의 어머니는 완전히 정신이상이었다. 지금의 어머니 그것은 이미 철호의 어머니는 아니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그것이 철호 자기의 어머니일 수는 없었다. 세상에 아들딸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가 있을 수 있는 것일까?

그날부터 철호의 어머니는,

ⓐ"가자! 가자!"

하고 저렇게 쨍쨍한 목소리로 외마디소리를 지를 뿐, 그밖의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다.

(중략)

(나) 그는 어느 전주 밑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침을 뱉었다. 그런데 그것은 침이 아니라 진한 피였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또 한 번 오한이 전신을 간질이고 지나갔다. 다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다. 그는 속히 음식점을 찾아내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서울역 쪽으로 허청허청 걸었다.

"설렁탕"

무슨 약 이름이기나 한 것처럼 한마디 일러놓고는 그는 식탁 위에 엎드려버렸다. 또 입 안으로 하나 찝찝한 물이 고였다. 철호는 머리를 들었다. 음식점 안을 한 바퀴 휘 둘러보았다. 머리가 아찔해갔다.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문밖으로 급히 걸어 나갔다. 음식점 옆 골목에 있는 시궁창에 가서 쭈그리고 앉았다. 울컥 하고 입안의 것을 뱉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위가 어두워서 그것이 핀지 또는 침인지 알 수 없었다. 철호는 저고리 소매로 입술을 닦으며 일어섰다. 이를 뺀 자리가 쿡 한번 쑤셨다. 그러자 뒤이어 거기에 호응이나 하듯이 관자놀이가 또 쿡 쑤셨다. 철호는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 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큰길로 나왔다. 마침 택시가 한 대 왔다. 그는 손을 한 번 흔들었다.

철호는 던져지듯이 털썩 택시 안에 쓰러졌다.

"어디로 가시죠?"

택시는 벌써 구르고 있었다.

"해방촌"

자동차는 스르르 속력을 늦추었다. 해방촌으로 가자면 차를 돌려야 하는 까닭이었다. 운전수는 줄지어 달려오는 자동차의 사이가 생기기를 노리고 있었다. 저만치 자동차의 행렬이 좀 끊겼다. 운전수는 핸들을 잔뜩 비틀어 쥐었다. 운전수가 몸을 한편으로 ㉡기울이며 막 핸들을 틀려는 때였다. 뒷자리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S병원으로 가."

철호는 갑자기 아내의 죽음을 생각했던 것이었다. 운전수는 다시 휙 핸들을 이쪽으로 틀었다. 운전수 옆에 앉아 있는 조수 애가 한 번 철호를 돌아다보았다. 철호는 뒷자리 한구석에 가서 몸을 틀어박은 채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었다. 차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를 돌고 있었다. 그때 또 뒤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X경찰서로 가."

눈을 감고 있는 철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하고.

이번에는 다행히 차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냥 달렸다.

"X경찰서 앞입니다."

철호는 눈을 떴다. 상반신을 벌떡 일으켰다. 그러나 곧 털썩 뒤로 기대고 쓰러져버렸다.

"아니야, 가."

"X경찰섭니다. 손님."

조수 애가 뒤로 몸을 틀어 돌리고 말했다.

ⓑ"가자"

철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어디로 갑니까?"

"글쎄 가!"

"하 참, 딱한 아저씨네."

"……."

"취했나?"

운전수가 힐끔 조수 애를 쳐다보았다.

"그런가 봐요."

"어쩌다 오발탄(誤發彈)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운전수는 기어를 넣으며 중얼거렸다. 철호는 까무룩이 잠이 들어가는 것 같은 속에서 운전수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멀리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다.

- 이범선, 「오발탄」 -

4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와 달리 (나)에는 공간적 이동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② (가)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나)는 '철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③ (가)에 비해 (나)는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적 긴장을 표현하고 있다.
④ (가)는 시간이 역전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되고 있다.
⑤ (가)는 사태의 전말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는 인물의 행동 묘사, 대화와 심리 서술이 혼재되어 있다.

47.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죽음을 앞둔 어머니의 절망감을, ⓑ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주인공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는 실성한 상태에서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욕망을, ⓑ는 목적의식을 상실한 주인공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는 답답한 방에서 나가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요구를, ⓑ는 자신이 가라고 한 대로 가지 않는 택시 기사에 대한 책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는 실성한 채 의미 없는 말을 내뱉는 어머니의 상태를, ⓑ는 만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주인공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⑤ ⓐ는 도시 빈민으로서의 생활에 대한 어머니의 비관을, ⓑ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택시 기사에게 토로하고 싶어 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48. 발상과 표현을 고려할 때, 밑줄 친 시어의 성격이 ㉠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소금실이 밀수출(密輸出) 마차를 띄워 놓고
밤새 가며 속태우는 젊은 아낙네
물레 젓던 손도 맥이 풀려서
파! 하고 붙는 어유(魚油) 등잔만 바라본다.
북국(北國)의 <u>겨울 밤</u>은 차차 깊어 가는데.
②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비(碑)스돌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 <u>해바라기</u>를 심어 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 달라.
③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u>아라비아 사막</u>으로 나는 가자.
④ 아동방(我東方)이 바야흐로 단군 이래 으뜸
으뜸가는 태평 태평 <u>태평 성대</u>라
그 무슨 가난이 있겠느냐 도둑이 있겠느냐
포식한 농민은 배터져 죽는 게 일쑤요
비단옷 신물나서 사시장철 벗고 사니
⑤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u>칼자욱</u>을 아는가.

49.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어머니'는 남한으로 넘어온 이후의 삶을 힘겨워했다.
② '어머니'는 육이오 이후 자식마저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③ 나라를 찾은 날 '어머니'는 시집살이의 서러움을 떠올렸다.
④ '어머니'는 용산 폭격 때 삼팔선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⑤ '어머니'는 나라를 찾은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되는 상황을 납득하지 못했다.

50.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심혈을 <u>기울여</u> 만든 작품이 헐값에 팔리고 말았다.
② 모든 청중들이 선생님의 고별 강연에 귀를 <u>기울이고</u> 있었다.
③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술잔을 <u>기울였다</u>.
④ 온 국력을 <u>기울일</u> 만큼 큰 사업이니 작은 실수조차 용납될 수 없다.
⑤ 사람들은 흔히 서시나 양귀비를 나라를 <u>기울인</u> 미색으로 알고 있다.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